

## “한국, 2050년 GDP 28.3% 떨어진다”



▲ 2050년 한국의 GDP는 2022년 대비 28.3%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 사진=뉴스1

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가능인구가 1%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이 0.59%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18일 '뉴시스'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'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' 연구를 통해 저출산·고령화 심화가 향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.

한경연은 국제연합(UN) 인구자료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의 총 인구수는 4,577만 1,000여명으로 지난해 5,181만 6,000여명 대비 11.7%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.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,398만 4,0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34.8% 감소한다.

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로 GDP 추이를 계산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% 감소하면 GDP는 0.59% 줄고, 피부양인구가 1% 증가하면 GDP가 0.17%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. 이에 따라 2050년 GDP를 추정할 결과 2022년 대비 28.3% 감소할 전망이다.

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"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 재정 부담의 증가,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"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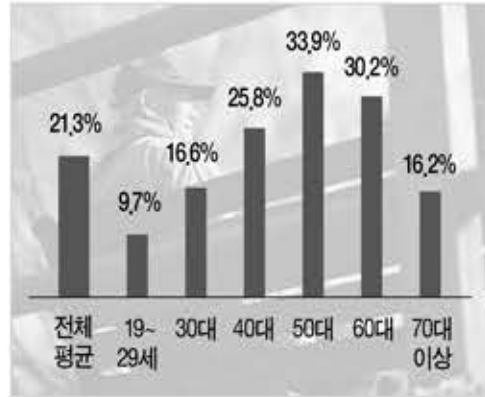
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, 외국인 근로자 활용,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## 고독사 위험 약 153만 명 ... 50대가 가장 '위험'

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'고독사'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%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18일 '연합뉴스'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'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' (2023~2027년)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.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~12월 1인 가구 9천471명에 대해 ●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1회 이하 ●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이하 ●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등 10개의 질문을 한 뒤 10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했다.

복지부는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. 이는 전체 인구의 3%, 1인 가구의 21.3%에 해당한다.



▲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비중. 자료=복지부

1인 가구 중 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33.9%로, 70대 이상(16.2%)의 배 이상이 었다. 60대(30.2%), 40대(25.8%)도 70대보다 높았고, 19~29세는 9.7%, 30대는 16.6%이었다.

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 중 중장년층(40~60대)은 '경제적 문제' (39.1%)를, 청년층(19~30대)은 '정서불안' (42.8%)을, 노인층(70대 이상)은 '건강문제' (30.4%)와 '정서불안' (27.9%)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.

복지부는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. 청년층에 대해서는 정서·취업 지원을, 중장년층에는 건강관리·안전·가사·재취업·사회관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층에게는 의료·건강관리·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.

## 고물가에 무제한·뷔페 식당 인기

한국에서 외식 물가는 물론 식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자 한 푼이라도 저렴한 메뉴나 같은 비용에 풍족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16일 '매일경제'가 검색 데이터 조사·분석업체 아하트렌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~4월 무한리필, 뷔페, 샐러드바 등과 관련된 외식 브랜드 검색량은 전년 동기보다 102% 상승했다. 이 기간 전체 외식 브랜드의 검색 상승률이 13%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89%포인트나 앞선 것이다.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3,80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.

구체적으로는 고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육류



▲ 서울 한 지역의 무한리필 입간판 옆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. 사진=연합뉴스

무제한 콘셉트의 외식 브랜드 (146%)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사브사브 브랜드 (103%)들도 검색량이 늘었다. 그 밖에는 일식·초밥 뷔페 업종의 검색량이 68% 늘었고, 한식 뷔페 검색량도 117% 뛰었다.

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.7%로 지난해 2월(3.7%)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%대로 내려왔다. 그러나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은 7.6%를 기록해 전월 대비 0.2%포인트 상승했다.

이번 조사는 아하트렌드가 네이버 검색량을 기반으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3,800개의 명칭과 주요 유사어를 분석한 결과다.

# Kyung Sook Yu, D.D.S

##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

**최신형**  
3DCT Pano Can Ceph  
설치 기념

**Free**  
임플란트 상담

**크라운 (PFM)**  
\$500

**잇몸치료**  
\$200 부터

**틀니**  
\$1500

**DR. Kyung Sook Yu**  
USC 치대 졸업

각종 보험 PPO / 메디컬 환영

**1370 S. Beach Blvd. #E La Habra, CA 90631**

**T.562.694.5850 월 - 목 9am - 6pm**

Imperial Hwy

S. Beach

● 유경숙 치과

에당식당